

2장

통일촌 사람들, 마을을 일구다



통일촌 사람들, 마을을 일구다

1. 통일촌의 사회조직

한 지역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혼자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예부터 집단을 이루며 공동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해왔다. 민속은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한 습관이 아니라 다수의 민중들이 공감하는 고유의 지식이며 풍속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집단에 의하여 향유되는 전승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마을공동체는 자연환경·생업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바, 그 집단의 성격과 기능, 역할을 알아보는 작업은 해당 지역의 환경, 생업, 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민속학에서의 사회조직으로는 농경 작업을 함께 하는 두레나 품앗이, 주로 크고 작은 단위로 구성되며 일종의 상부상조하는 모임인 계(契, 대표적으로 상여계가 있다), 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의 공적 조직 등을 가리킨다. 물론 이들 조직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활동 및 영향력이 부침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 발전을 위해서 존속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도시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사회조직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능과 특징 등이 약화되고 마을 구성원들의 결속력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생업환경의 다양한 변화, 인구의 감소, 노년인구의 증가, 개발지역으로의 수용 등 최근의 변화는 사회조직을 약화시키는 계기로써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마을이 형성되는 요건을 보면, 자연환경에 맞게 이루어진 자연부락에서부터 여러 성씨들이 모여 사는 집단부락, 한두 성씨만이 모여 사는 집성촌, 과거에 양반들만 모여 살았던 반촌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조사지역 통일촌은 1973년 새롭게 행정구역상으로 조성된 마을이다. 따라서 친족이나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의미의 사회조직으로 구성된 마을이 아니다. 또한 생업환경의 다양한 변화, 인구의 감소, 노년인구의 증가, 개발지역으로의 수용 등의 이유가 사회조직의 약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애초부터 이곳 통일촌에서는 과거 두레와 품앗이 형태의 공동노동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특유의 방식으로 공동노동을 통해 마을주민 서로는 협동 단결하고 있다. 이것은 마을에 이주한 이주민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육, 해, 공군 다 들어왔는데 육군이 많았고, 해병대가 둘인가 하나가 지원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장교가 상당히 많았어요, 소령, 중령들이. (중략) 지금 영관급들이 하나, 둘, 두 사람 살았네. 고향이라고 들어온 사람이 14인가 15밖에 없었어요. 군내면 사람들 나머지는 장단에 살던 사람들인데 들어왔지. 35명 아마 들어왔는데, 15명이 백연리, 정자리, 읍내리 사람들이 있더라구요.¹⁷⁾

1970년대 정부의 정착촌 개발전략에 따라 조성된 통일촌에 입주한 80가구 중 15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신청을 통해 입주한 외지인이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전역 예비군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다. 입주당시의 마을은 마을공동체 조직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외래인과 연고인을 혼합 입주시킴으로써, 단결력 및 향토애의 결핍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마을 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노력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노동조¹⁸⁾

통일촌은 10명이 1조 단위로 편성되어 공동노동을 했다. 조는 근거리의 10개 가구를 묶어 구성했고, 4개 조가 묶여 한 개의 반으로 이루어졌다. 통일

17) 최○○(남, 74세)

18) 통일촌 지역민이 부르던 명칭이 없어 임의로 공동노동조라 칭한다.

촌에는 총 2개의 반이 있는데, 초기 이주민 80여 가구가 8개 조로 구성되어 논밭의 개간이나 마을 경조사 등을 함께 했다. 이 마을의 품앗이, 두레는 모두 조단위로 이루어진 셈이다.

8개반에, 아냐. 10명씩 조를 짰어요. 가끔 했지 회의를 아냐. 예비군에 한 해서 조를 짜고. 84호에 20호(주택, 나중에). 8조로 나눠서. 반이 2개반 이지 아냐. 아주 군대식이야.¹⁹⁾



마을 조 재배(2007년)

처음 이주했을 당시 마을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공동노동조가 번갈아가며 척박한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로 개간하였고, 땅의 터를 다지는 일을 하였다. 특히, 이 지역에는 지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발목지뢰에 다친 사건, 농사를 도와주러 갔다가 탈곡하는 길목에서 대형지뢰가 터져 중상을 입은 사건, 도라산 자락에서 발목지뢰에 다친 사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참호에 빠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건, 빗물에 지뢰가 쏠려 내려오는 사건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노동조를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장소(수풀, 산 일대)에 가지 않도록 주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공동노동조는 당시의 마을 개간 작업 뿐 아니라, 향토 예비군 편성 조직으로 대피훈

련 및 국방의 일면을 담당하는 기본 조직이었다. 1970년대 당시에는 여성들도 훈련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마을 개간 작업은 모든 통일촌으로 이주해 온 주민들에게 가장 큰 과제이자 시련, 그리고 보람이었던 것이다.

19) 최OO(남, 74세)

그냥 그게 몇 십년 묵은 땅이야? 순 개간만하다 보니 늙었지. 지금까지
그래. 39년이 됐는데 뭐.²⁰⁾

(2) 노인회

통일촌의 노인회는 1996년에 입주민들의 부모 세대 6명으로 정식으로 조직이 되었다. 입주 초기부터 노인회를 조직하지 않은 것은 당시 ‘노인’이라는 용어도 생소할 만큼 여건이 되지 않아서였다. 조사지역에서는 노인회가 마을 내에서 중요한 사회조직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과거 마을을 발전시킨 장본인으로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있겠으나, 현재 조사지역 내의 주민이 60대 이상의 노인이라는 점과 청·장년의 이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마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과 노인회의 회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노인회는 통일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남녀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통문화의 승계와 창달, 지역사회 봉사,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과 경륜의 전수, 노인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현재는 조사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60세를 넘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거의 전부가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비교적 나이가 적은 60대 주민들은 노인축에도 못 끼고, 경로당도 잘 찾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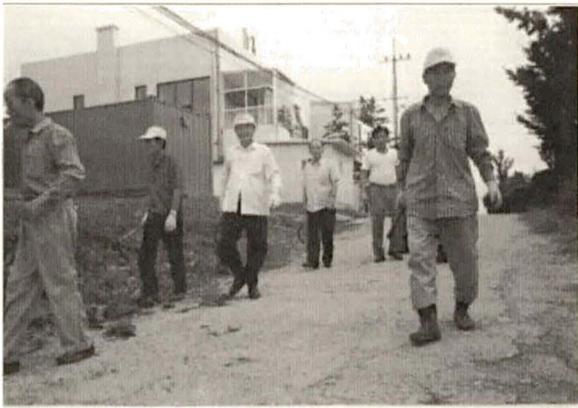
노인회의 임원은 회장·총무·이사·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만약 회의에서 회장의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 회장이 연임을 하게 되는데, 9년 동안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무·이사·감사의 임기도 또한 3년으로 되어 있다. 임원은 노인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갖고 있다.

노인회의 정기 회의는 두 달에 한 차례씩 열린다. 회의에서는 노인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활동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루어지며, 정기회의 후



노인회 장부

20) 박O희(여, 70세)



마을대청소(1997년)

에는 함께 회식을 하며 친목을 다진다. 최근에는 노인회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정기회의는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주로 이용된다.

노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돈은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회비로 충당한다. 경로당 관리비와 노인회 지원금으로 시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노인회를 운영한다. 지원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모자라는 금액은 그때그때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서 충당한다. 노인회는 연말 결산²¹⁾, 관광, 봉사활동, 부조 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노인회는 시에서 지원되는 경로당운영비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관리한다. 전기·수도·가스 등을 관리하며 특히, 겨울에는 난방을 위한 보일러 가동, 기름 구입 등으로 적지 않은 노고를 들이고 있다.

마을의 환경미화도 노인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통해서 대청소하는 날을 정하여 실시한다. 대청소일이 되면 전체 노인회 회원이 모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한다. 이는 단합과 함께 마을을 내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애乡심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마을 내의 분리수거도 노인회에서 담당한다.

관광은 일상의 피로를 풀고 회원 및 마을 주민의 친목을 위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이 고향

인 관계로 가까운 거리의 장소를 선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인천으로 관광을 갔다. 노인회에서 준비하는 관광은 노인회의 회원뿐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이것도 지역주민의 감소와 주민의 노령화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마을의 부조활동도 노인회의 몫이다. 마을의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노인회에서 부조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마을의 공동 상여를 활용하였다. 최근에는 문산 시내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지내고 화장하

21) 노인회의 연말 결산은 12월에 이루어지며 노인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리를 하는 자리이다. 연말결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는 시에서 받은 연료비 등의 예산안 등이 있다



경로당 입구(현재)



대한노인회통일촌경로당(연도미상)



제주도 관광(2012년)



초복놀이 철다리에서 1997년 (상), 중복놀이 1998년 (하)



현재 경로당에서 여성노인회원들의 활동

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회에서는 근조화환을 구입하기 위해 10만원씩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근래에 들어 바뀐 상장례 문화가 노인회의 부조활동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마을 제설작업(1997년)

(3) 부녀회

일반적으로 부녀회는 새마을운동과 관련이 깊지만, 통일촌의 부녀회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부녀회는 통일촌에 초기 거주했던 여성 전원이 가입하여 1974년 설립되었다. 처음 이주당시 부녀회 전원이 500원씩 혹은 절미 한줌씩과 폐품수집 운동으로 구판장을 차렸다. 구판장은 통일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부녀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판장은 통일촌 부녀회에서 슈퍼마켓으로 아직 운영되고 있으나, 그 수익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

마을정비 부녀회가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500원, 절미 한움쿰씩 모아 가지고, 처음에 구판장을 했어.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깐 개인한테 넘겼지. 그게 안 되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지금도 개인이 해요. 부녀회식당 옆에.²²⁾

그 후 1987년 관광객을 위해 부녀회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식당의 수익은 부녀회에서 관리하였고, 수익의 일부는 부녀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통일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식당이어서 수입이 좋았고, 그에 따라 부녀회는 마을을 가꾸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부녀회는 새마을대청소·재활용품 수집운동·쓰레기줄이기운동·재생용품 쓰기운동 등 생활환경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소년소녀 가장 돕기·군경 교도소 위문 등의 행사도 한다. 90년대에는 파주 탄현의 햇빛고아원에 봉사활동 및 지원을 했었다. 최근에는 고아원에 봉사활동단체가 많아져 독거노인 방문사업이나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부녀회의 활동이 활발했을 때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회의를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부녀회의 활동에 대하여 부녀회원들과 논의를 하게 된다. 주로 마을에서 벌어지는 행사와 관련하여 음식장만, 진행 등의 수행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또한 파주시에서 나오는 각종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회원들에게 전파하여 각 가정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부녀회원들은 이러한 회의에 마을과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현재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가진다.

특히 초상이 났을 경우에도 부녀회원들은 초상집에서 일손을 도와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내 환경정리 및 분리수거 등 담당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장승고사와 같은 마을제사에 재정적인 지원도 한다. 이외에도 부녀회장은 파주시부녀회에서 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 부녀회장의 이러한 활동은 마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2) 박O희(여, 70세)

(4) 상조계

전통사회에서 초상이 났을 경우, 마을 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초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초상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조계·상여계·상포계라고 부르는 조직을 마련하여 서로 도왔다. 통일촌에도 상조계가 있었다. 이러한 마을내의 협동조직은 1990년대까지도 잘 유지되어 오고 있었으나 장례 일체를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것으로 변하게 되면서 상조계의 역할이 점차로 약화되다가 현재는 소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적 성격이 소멸된 것일 뿐 여전히 마을 내에 초상이 나면 자신의 일처럼 일손을 거들고 있다.

상조계에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속하게 된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이 나면 자연스럽게 초상집에 가서 도와주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 상조계원의 집에 초상이 나도 조사지역의 마을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였다.

초상이 나면 상조계원은 초상집에 모이게 된다. 이때에 각 상조계원은 보통 쌀을 가지고 가게 된다. 평소 회비는 따로 걷지 않고 초상이 났을 때 가져가는 쌀이 회비의 역할을 대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품목이나 양은 없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가져가면 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시절에는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상조계를 운영하는 이유이다.

상조계원들이 초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웃 마을에 부고를 돌리는 일이다. 과거에는 직접 부고를 전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부고를 돌리는 일을 나누어 했다. 부고는 초상집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고를 전하는데, 마을 청년들이 주로 부고를 돌렸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 먼 지역에 살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부고장을 전해주었다.

부고는 남자계원이 하는 역할이고, 여자는 초상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초상집에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 때문에 음식 장만도 중요한데 여자계원의 이러한 역할은 초상집에 큰 힘이 된다. 초상집에서는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음식 장만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조계원들은 상여조립, 묘 자리 다듬기, 상여운반 등의 작업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초상집을 도와주었다. 조사지역에서 상주는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준 상조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약간을 수고비를 주기도 했다.

이러한 상조계·상포계는 상부상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사지역의 주민간의 화합에 큰 작용을 하였다. 현재에도 초상이 났을 경우, 마을 주민들이 일손을 돕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대신 노인회에서는 근조화환을 만들어 올린다.

(5) 기타

조사지역에서는 이외에도 크고 작은, 혹은 비공식적인 다양한 사회조직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친목과 유용성 두 가지의 목적으로 조직되는데, 대부분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지향하고 있다.

가. 민통선 장단콩 영농조합법인

민통선 장단콩 영농조합법인은 지역특산물인 콩과 인삼의 재배를 위해, 특히 콩의 경우 대면적 재배와 파종에서 수확·조제까지 기계화에 의한 경영비(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의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가입 조건은 통일촌에 거주하며 콩과 인삼(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 생산품목은 콩과 인삼으로, 통일촌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단콩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민통선 장단콩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하는 주 작물의 경작면적은 콩 30,000평(10ha), 인삼 2,000평(6.7ha)이며, 재배면적별 생산량은 콩 20(ton), 인삼 8,000(kg)이다. 회원 수는 6명으로, 수시로 모여 장단콩과 관련한 정보 공유, 작황 등에 대해 논의를 한다.

민통선 장단콩 영농조합 법인 대표는 30여 년 전 부터 축적된 영농기술로 종사하다 1999년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주요활동은 지역특산물인 콩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개최되는 장단콩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2012년 파주 장단콩 축제에도 참여하였다.

나. 파주장단콩영농조합

통일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영농조합이 민통선 장단콩 영농조합이라면, 파주시 내에서 장단콩을 브랜드로 활동하는 영농조합은 파주장단콩영농조합이다. 이 영농조합은 장단지역의 콩 자급률 향상, 농가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 가입대상은 우리콩 자급률 향상에 뜻을 가진 자, 장단지역에서 거주하며 장단콩생산에 뜻을 가진 자이며, 현재 회원은 6명이다. 주 생산품은 백태와 서리태이며, 월 2회 주기적으로 모여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다.

파주장단콩영농조합은 1996년 겨울철 일감 사업으로 출범하였다. 겨울에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작물로 백태를 선택한 사업단체는 1997년 장단콩 작목반을 결성하였고, 1997년 제1회 장단콩축제를 개최하여 매년 파주 장단콩 축제를 주최하고 있다. 이후 1998년 8월 장단콩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파주장단콩영농조합은 최초의 농촌진흥청 일감 갖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농외소득과 농가소득증대에 뜻을 갖고 사업을 하며 현재에는 우리콩자급률 향상과 장단콩을 이용한 전통장류 사업을 하고 있다.

다. 통일촌양봉작목반

통일촌양봉작목반은 회원 상호간에 기술전수에 의한 생산량증대, 품질향상 및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구성되었다. 가입조건은 백연리에 거주하며 양봉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처음으로 6명이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작목반 대표는 30여 년간 양봉업에 종사하며 파주지역 작목반원으로 활동하던 중 1995년부터 통일촌(민통선) 주민으로 별도의 작목반을 구성하였다. 이후 코엑스물 특산물 브랜드행사에 출품하였고, SBS 방송에 방영, 장단콩 축제 출품 등의 활동을 하였다. 현재 통일촌 농산물직판장, 제3땅굴 판매장에 꿀을 납품하고 있다.

작목반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 사양하는 봉군의 수는 500여통이며 연간 아카시아 꿀은 약 8,000ℓ, 잡화꿀 2,000ℓ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꿀의

시판 단위는 2.4kg, 1.2kg, 600g을 단위로 병에 넣어 판매중이다. 그 외 생산품은 프로폴리스(100cc), 화분 등이며 로열젤리(50g)의 경우는 현재 연간 300여병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라. 통일촌배작목반

통일촌배작목반은 배 작목반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재배기술 전수, 충분한 물량확보로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으로 소득제고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민통선 지역인 군내, 진동, 진서, 장단면 일대에서 배를 재배하는 농가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회원 수는 6명이고,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작황에 대한 논의나 작법 공유 등을 하고 있다.

재배초기에 면적의 협소로 인해 타 지역 작목반으로 활동하다 2000년 통일촌배작목반 결성 후 초생재배, 퇴비위주의 유기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17,000평이고, 생산량은 50톤인데 15kg상자로 3,330상자 정도가 생산된다.

마. 통일촌조기축구회

통일촌 조기축구회는 회원들의 체력증진과 상호친목을 위해 통일촌에 거주하는 청·장년을 가입대상으로 2001년 1월에 결성되었다. 회원은 15명이고, 월 1회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통일촌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학교인 군내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건립하였으며 여러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조기 축구회와 상호 방문 경기를 통한 통일촌 알리기와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바. 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는 백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군내초등학교 교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처음 군내초등학교육성회로 시작하여 체육진흥회로 개명하였다가, 1998년 학교운영위원회로 설립되었다.

7명의 회원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여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논의를 한다.

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공동목표 구현을 위한 심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 및 심의한다. 군내초등학교는 주민의 의견을 교육에 반영한 예로써, 주민자치 실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발전기금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주요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 협의, 학교 행사실시 및 방법협의, 학교 예·결산 심의, 학교 주요물품 구입심의, 학교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학교 중요사안협의 등이다.

사. 군내면농촌지도자회

군내면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 지도하여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하여 1980년 구성하였고, 군내면에 거주하며 영농기술이 뛰어나거나 선도할 수 있는 선진농가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현재 회원 수는 14명이고, 월 1회 모임을 가진다.

군내면농촌지도자회는 면내 연합회 주최행사인 하계 수련대회, 동계 등산대회의 두 행사를 통해 군내면 농업관련 단체와의 친선 도모를 하고 있다. 시단위행사인 3월 등산대회 및 풍년기원제, 하계수련대회, 고양시와의 체육대회 행사, 파주 시민 체육대회, 한 마음 대회 (파주시 농업 관련 단체 모두 참여)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가을철 각 읍·면별로 모금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농민회관(파주시 농촌 지도자회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 등으로 타 시·군·구에는 없는 농민회관 건물을 건립하여 이곳에서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고 시연합회 운영 경비 등을 조달하고 있다. 군내면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영농기술과 관련 농업기술 센터와 연계하여 선도적으로 농촌활동을 전파하고 농가소득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통일마을을 통하여 보급, 홍보할 계획이다.

아. 파주비무장지대영농조합

파주비무장지대영농조합은 지역특산물인 콩의 재배노동력에 비해 재배 면적이 한정되었으나, 기계화를 통해 작업의 일관화와 생력화로 면적의 확대

와 생산증가를 위해 구성되었다. 지역특산품인 장단콩 축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통일촌에서 거주하며 콩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현재 회원 수는 10명이다.

파주비무장지대영농조합은 콩 재배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1995년 집단재배 작목반을 결성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2001년 11월 법인체로 등록하였다. 당시 재배면적은 60,000평 (20ha), 생산량은 40톤에 달했다. 장단콩 외에 고추, 참깨 등을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된장, 고추장 등을 전통 기법으로 생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해들넉 콩나물 공장에 콩나물콩을 생산, 납품할 예정이며, 장단콩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장단콩 연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자. 통일위탁영농회사

통일위탁영농회사는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위탁 및 임대농 위주의 농지 확보와 소규모에서 대규모농지로 확대시켜 기계로 영농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구성되었다. 가입대상은 통일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며 자가 소유 농지를 보유한 자이다. 회사의 성격상 위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영농기계를 빌려주거나 인력을 동원하여 농업을 도와주고 있다. 현재 회원수는 5명이고, 월 1회 모임을 가진다.

통일위탁영농(유한)회사는 1996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위탁 및 임대농지규모는 28ha였으나, 지속적인 가입과 경지면적 확대로 2001년 농지규모는 38ha까지 늘어났다. 2002년에는 농지규모의 적절한 이용으로 수도작 외에 대체작목으로 일부 변형하여 이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농기계 트랙터 65hp 1대, 콤파인 4조식 2대, 승용이앙기 6조식 3대, 벼순환식건조기 4대, 트랙터 43hp 1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지역의 성립환경에 따라 사회조직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농업이 주 생업이던 통일촌 사회에서는 마을 주민들 간의 협동이 필수였다. 따라서 두레나 상조계와 같은 사회조직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전통사회의 농촌 성립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신청을 통한 전역군인 이주 및 그에 따른 경작지 및

주거지 개간은 통일촌의 마을 주민들을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다. 특히 북한과 맞닿아 있는 통일촌 환경의 특성상 전시에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군대와 마을노동조의 편성이 유사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기존의 전통사회 농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노인회나 부녀회를 결성하여 마을사업을 이끌어갔다. 여타의 농촌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모내기과 김매기 등에 사람의 손이 덜 가게 되기 시작하면서 두레의 역할은 감소하게 되었고 상조계 또한 병원의 장례식장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면서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촌은 노인회와 부녀회를 두 축으로 하여 마을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며 합심하였다. 현재까지 통일촌 내 이주인구가 다른 농촌마을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러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아직도 마을 내에서 노인회와 부녀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며, 특히 부녀회는 마을 내 주요사업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회나 새마을협회와 같은 사회조직은 없지만, 통일촌의 사회조직은 어느 곳보다 단결력과 협동심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조직들을 형성한 주민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마을 내의 초등학교를 주민 자치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조기축구회 등을 만들어 통일촌의 생산품을 홍보하는데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농조합 및 작목반은 통일촌의 환경 특성을 살린 농산품을 개발하였고, 마을을 위해 위탁회사도 지어졌다. 사회조직 중 마을과 연관성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촌에는 이상적인 사회조직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 통일촌 사람들의 생업

생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활비는 의식주를 포함한 교육,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벌어들이는 것까지 포함한다. 농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는 입고·먹고·자는 것만을 해결하기 위한 생업활동이었다면,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입고·먹고·자는 것 외에도 교육과 문화 활동 같은 2차적 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해결하기 위한 생

업활동이 되었다.

통일촌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생업은 논농사와 밭농사, 그리고 인삼재배이며, 소수의 주민들은 축산업, 양봉, 배농사, 콩을 이용한 식품 판매 등을 생업으로 갖고 있다. 이외에도 조합이나 부녀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통일촌 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판매하거나, 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들도 있다.

통일촌은 1972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정착촌 재건 지시에 의해 이스라엘의 '키부츠농장'을 모델로 삼아 건설되었다. 당시 통일촌에는 1사단 군제대자 40가구, 백연리 인근 지역 연고자 40가구 등 총 80세대가 입주하였다. 통일촌 입촌 자격은 예비군 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한 가구당 5인까지 가능했다. 그래서 통일촌에 들어오는 입주자의 구성은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2세대가 주를 이뤘다.

그때는 예비군 35살 미만. 그 조건이. 첫째는 예비군. 두 번째는 여기 살던 사람, 고향인 사람, 세 번째는 여기 땅 가진 사람. 군인 제대한 사람이 반이 들어왔어. 상사고, 중사고 뭐고. 박정희때 예비군인 사람. 80세대가 들어왔는데, 40세대가 군인이고, 40세대가 민간인이고. 그때는 예비군. 5사람 외에는. 그때는 농사짓는 사람. 자식도 5사람 넘으면 못 데리고 들어왔어. 두고 와야지.²³⁾

정부에서는 통일촌에 입주한 80세대에게 각 세대별로 논과 밭, 주택, 농사용 소 1마리 등을 지급하였다. 통일촌 형성 초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지급받은 논과 밭을 활용하여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업으로 삼게 되었다.

통일촌에 입주한 주민들 중에는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농사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적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농사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 당시 교육은 주민들 중에 농사경험이 있는 사람과 파주시농촌지도소에서 파견된 새마을지도자였다.

밭작물을 지었어요. 논도 있고. 여기는 밭작물이라고 해야 콩 정도이죠.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논농사, 밭농사 지었죠. 세 사람이 같이 들어왔죠.

23) 최O순(남, 74) 2012년 11월 21일 면담.

아들이랑. 할머니가 농사 다 지었죠. 그러니 고생했죠. 낫설고 한참 힘들고.²⁴⁾

땅하고 집하고 소 한 마리, 소는 농사지으라고 준거죠. 소는 남들이 하는 대로 했어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다 배워서 이제는 다 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소도 그렇고. 가는 방법이 다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거죠. 뭐.²⁵⁾

군대 가기 전에 농사지었다가 제대하고 들어와서 농사지었죠. 농사는 처음에 군인들 중사급들 다 교육받아서 했지. 경운기도 내가 가르쳤어. 아들이 저거로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새마을지도자로 교육도 시키고 했지. 소 끄는 거 가르치고, 경운기 끄는 거 가르쳤죠. 해 본 사람이 소를 모는데, 소는 모는 법이 다 다르잖아. 여기는 소 가지고 이복서 나온 사람이라. 소에다 멍에 씌우고, 쟁기 씌우고.²⁶⁾

통일촌에 입주한 2년 동안은 소를 이용한 밭농사를 지었다. 1973년 입주 초기에는 농지정리가 덜되어, 밭작물 위주의 농사를 짓다가 농지정리가 끝난 1974년부터 논농사를 짓게 되었다. 이때 정부에서 40대의 경운기를 보조받아 2가구당 1대씩 경운기를 가지고 논농사를 시작하였다.

경운기 들어왔죠. 8만원짜리 일제로. 40대. 74년도에 경운기 들어왔어요. 경운기는 내가 파주시청에서 내가 경운기 40대 받아서 왔지. 처음에는 2집에 하나씩. 그때부터 경운기로 농사지었지. 처음에는 소 가지고 2년 지었어요. 나중에 경운기로 지었지. 75년부터 경운기로 농사지었죠. 하루는 내가 하고, 하루는 저기가 쓰고, 관리는 같이 하고. 기름은 각자 채우고, 농사는 각자 짓고, 경운기는 2집이 같이 써도 기름은 각자 쓰고. 기름을 더 부어주기도 하고. 경운기로다 농사를 이 트랙터 나오기 전에 15년 되었나.²⁷⁾

정부에서 배급받은 경운기로 10여 년 동안 농사를 짓다, 정부에서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금보조가 있어 대농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은 당시

24) 송O식(남, 81) 2012년 11월 8일 면담.

25) 박O식(남, 83) 2012년 11월 21일 면담.

26) 한O남(남, 77) 2012년 11월 15일 면담.

27) 한O남(남, 77) 2012년 11월 15일 면담.

4,600만원의 돈을 주고 트랙터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트랙터가 없는 사람은 트랙터가 있는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통일촌에서는 기계를 이용한 농사가 시작되었다.

경운기로 한 10년 짓다가 트랙터 나오면서 트랙터도 구입하고. 트랙터는 개인 돈으로 샀죠. 처음에 저거 정부 보조 좀 받고. 이거 사천. 그때 당시에 4600인데 보조 받고, 농사 많은 사람이나 샀죠. 없는 사람은 경운기 짓고, 돈 주면 내가 가서 해주고. 하루 가서 해주면. 지금은 기름값이 비싸지만, 그때는 기름이 싸잖아요. 처음에 받은 경운기는 다 없애고, 나중에 각자 구입했죠.²⁸⁾

1980년대가 되자, 전두환 대통령이 수복 지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1973년 입주할 당시 불하받은 논과 밭에 대해 원주인에게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토지를 구입하였고,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개간했던 논과 밭을 원주인에게 반납해야 했다.

처음에 박정희가 들여보낸 거고, 전두환이 되면서 땅 찾으라 하면서 땅 있는 사람들 땅 찾고 했지. 논 4500평에다가 밭 1200평 이렇게 줬는데, 다 뺏겼지. 주인한테. 뺏고, 샀지. 돈 내고 샀지. 땅 임자한테. 처음에 온 사람들은 고생 무척 했지. 땅만 밀어준 거 개간하느라 고생 많이 했지.²⁹⁾

땅도 그냥 준 거 아니야. 나중에 다 샀잖아. 땅은 남의 땅을 막 개간해서 준거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준거고,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갚은 거지. 반환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싹 나고 하니깐 정부에서 돈 주면서 사라고 했지. 그때 판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고. 그때 정부에서 사서 우리에게 빌려준 거지. 그게 이자가 0.3%인가 그랬어. 땅값이 싸니깐 돈이 얼마 안 됐지. 정부에서 돈을 줬는데, 이자를 해서 줬지.³⁰⁾

28) 한O남(남, 77) 2012년 11월 15일 면담.

29) 최O순의 부인(여, 73) 2012년 11월 21일 면담.

30) 최O순(남, 74) 2012년 11월 21일 면담.

다 뺏겼어. 땅 임자 찾으라는 대통령 명령으로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깐 다 내놨지. 조금 샀는데, 다 뺏겼지 뭐. 땅 임자니깐 내놨라 하니깐 내놨지. 지금은 얼마 안 돼.³¹⁾

이 때 토지 반납이나 토지 재구입으로 인해 통일촌 주민들의 토지 소유량이 증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생활의 여유가 있거나, 정부에서 대출을 받은 주민은 토지 소유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활의 여유가 없거나, 혹은 가짜 토지 주인에게 사기를 당함으로써 토지 소유량이 축소되기도 하였다.

통일촌에 입주한 사람들은 쌀 재배를 위한 논농사와 콩이나 고추를 재배하기 위한 밭농사, 그리고 인삼재배를 주업으로 삼았다. '통일촌 특미', '장단콩', '개성인삼' 등의 지역 이름과 생산품의 이름이 접목된 쌀, 콩,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통일촌 주민들은 쌀농사, 밭농사, 인삼재배 외에도 젓소를 키우는 축산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소 파동이 일어나, 젓소를 키우던 주민들은 소를 처분하면서 축산업은 쇠퇴하였고, 현재 3가구만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축산업이 쇠퇴하고, 벌을 키워 꿀을 채집하는 양봉업을 하는 주민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도 곧 쇠퇴하여 현재는 1가구만이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다.

양봉업이 쇠퇴하자, 쌀농사와 콩농사, 인삼 재배에서 큰 수익을 못 얻는 주민들 중에 배농사를 짓는 주민도 생겨났다. 배농사는 현재 1가구가 생업으로 삼고 있다.

통일촌의 밭작물 중에는 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민들도 생겨났다. 현재 통일촌 내에서 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민은 3가구 정도이다.

이렇게 통일촌 주민들은 논농사, 밭농사, 인삼재배, 축산업, 양봉업, 배농사, 콩을 이용한 식품 판매 등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31) 김오민(여, 77) 2012년 10월 19일 면담.

(1) 논농사

논농사는 통일촌 주민들이 입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생업으로 삼고 있다. 1973년 입주 당시 각 세대별로 논 5,000평을 불하받았고, 주민들은 이곳에 논농사를 지었다.

통일촌에서는 올벼와 늦벼를 함께 재배한다. 올벼는 추석 전에 생산하는 벼로 햅쌀용으로 판매하는 품종이다. 늦벼는 추석 이후에 생산하는 벼로 맛이 좋아 수매가를 더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통일촌에서는 올벼와 늦벼를 한 논에 심어 수확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다.

올벼는 일찍 베지. 추석 아래 햅쌀이 나오니깐. 그거 얘기가. 품종도 다르지. 빨리 나오는 벼씨지. 늦벼는 추석 지나고 나오는 거고. 맛은 늦벼가 좋지. 올벼는 8월 추석에 나는데, 8월달에 햅쌀에 먹는다는 거지. 맛이 없어. 같은 논에 나눠서 심는 거지. 올벼 따로 심고, 늦벼 심고, 올벼 따로 심어야지. 일찍 베니깐. 늦은 거랑 한데 섞으면 늦는 거는 늦게 여무니깐 안 되잖아. 그러니깐 따로 심는거지. 종류가 여러 가지야. 심는 시기는 같은데, 여무는 시기가 다른거지. 올벼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심는데, 우리는 올벼 안 심어. 늦벼만 심어. 늦벼가 맛있지. 올벼는 추석 때 팔아야지. 그때 지나면 맛이 없어.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알지.³²⁾

여기는 보통 10월 말서부터 수확을 해. 올벼는 9월 10월에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올벼를 많이 안 해. 늦벼를 해. 왜냐하면 아끼바리 같은 거 많이 심기 때문에. 아끼바리는 밥맛이 좋고. 그러니깐 심지. 지역 날씨하고 상관없이 비싸게 팔려서. 밥맛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 선택해서 심는 거야. 빨리 심어도 뭐 수확은 거의 같이 해야 돼. 빨리 심는다고 빨리 나는게 아니야. 빨리 심는다고 별로 빨리 나지도 않아. 차이가 없어.³³⁾

32) 최O순의 부인(여, 73)
2012년 11월 21일 면담.

33) 이O태(남, 83) 2012년
11월 20일 면담.

가. 농사법

① 법씨 소독하기

통일촌에서는 3월 20일경이나 4월이 되면 법씨를 소독하는 일을 한다. 법씨 소독은 모가병 방지약과 소독약을 넣은 물에 법씨를 담그는 것이다. 약을 탄 물에 담근 법씨는 24시간이 지나면 물을 갈아주고, 약 1주일간 물에 더 담가줬다가 채반에 걸러 법씨를 받쳐둔다. 법씨를 소독하는 일이 그 해 농사의 첫 시작이다.

법씨를 물에 불려 놔다가 해. 요즘에는 모를 대번에 영농회사라고 있어 가지고 사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는 미리 담가놔야지. 보통 1주일 이상 담가놔야 해. 물에 담가놓은 후에 일주일 후에 법씨를 뿌리는 거야. 3월 한 20일경이 되어야 해. 물에 불리는 거야. 주일 있다가 그 법씨를 건져서 밭에다 뿌리는 거야. 법씨 불리는 물은 아무 물이나 되는데, 거기다 약을 타야 하는데, 수돗물에 약을 타는거야. 저 뭐야 모가병 들지 말라고. 1주일 정도 그냥 밭에다 두는 거야. 3월이라도 별로 안 얼어. 조금씩 어는데, 조금 얼어도 괜찮아. 법씨는. 도라무에다, 아니면 플라스틱 통에다가 씨를 불려놔다가 밭에다 뿌리는 거야.³⁴⁾

법씨 담그는 건 4월 달에 양력 4월. 물에다 며칠 담가줬다 건져서 논에다 뿌리는거지. 집에서 다라에다 담아. 담가놔. 껍질 안 깎거지. 그걸 물에 불리는 거지. 까면 싹이 안 나오지. 법씨 하는 거 소독하는 거야. 담글 때 그 약이 있어. 모가병 방지도 되고, 소독 겸해서 모가병 방지하는 거야. 그 약이야. 약 이름은 생각이 안 나. 그거 탄 물에다 담그지. 24시간 만에 물을 갈아. 갈아가지고 그 물에 계속 담가놓는 거지. 물을 갈아줘야지. 물에서 건져서 이런 자루에다가 담아놓지.³⁵⁾

② 못자리 내기

소독한 법씨를 모판에 심어 모종을 만든다. 이때 모판을 보관할 장소를 못자리라고 하며, 못자리는 논이 한 쪽에 만들기도 하고, 집에 통풍이 잘 되는

34) 이O태(남, 83) 2012년 11월 20일 면담.

35) 최O순의 부인(여, 73) 2012년 11월 21일 면담.

곳에 만들기도 한다.

모판에 모종 심는 것은 농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 만들었으며, 모판에 모종을 심기 전에는 논에 못자리를 벼를 바로 뿌리는 방식으로 모종을 키웠다.

모판에 심은 모종은 약 1달간 키워야 모내기를 할 수 있다.

모판에 모종 하는 거는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했어. 모판에 직접 볍씨 넣어서 모종 키우는 건. 처음에는 모판이라는 게 없었지. 그전에 그냥 논 이렇게 못자리판 만들어 가지고 그냥 뿌렸지. 사각형으로 만드는 건 없었고, 차차 발달이 되면서 시방 모판이니 뭐니 있는 거지. 논에다가 모 심는 자리를 만들었어. 모판에다가 씨를 뿌리는 기계가 있어. 우리 때 기계가 있어. 나중에 다 사가지고 기계로. 모판에 씨 심는 거는 5월 달에. 모심는 거지. 볍씨 뿌리는 거 보통 그 전에. 하여튼 볍씨 뿌려가지고 40일 돼가지고 모내는 거기 때문에. 40일 전. 3월 중순쯤. 농사일은 3월에 시작하는 거야.³⁶⁾



모판 만들기

③ 논 물대기

못자리를 만들고 나면, 논에 물을 댄다. 논에 물을 대는 것은 논에 모를 심기 위해 물을 보충하는 것이다.

④ 논갈이와 씨레질 하기

모종이 자라는 동안에 물 댄 논에 논갈이와 씨레질을 한다. 논갈이는 쌀 농사를 지을 땅을 파서 뒤집는 일이고, 씨레질은 논갈이로 뒤집혀 뭉친 흙을 다져서 평평하게 하는 일이다. 논갈이와 씨레질은 모심기에 적당한 땅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다.

기계농이 발전하기 이전의 다른 지역에서는 소에게 멩에를 씌우고, 쟁기를 걸어 1차로 논을 간 후에 쟁기를 떼고, 씨레를 걸어 뭉친 흙을 씨는 2차

36) 이오태(남, 83) 2012년 11월 20일 면담.

논갈이를 하였다. 그러나 통일촌은 소를 이용한 논갈이는 많이 하지 않았고, 1975년에 정부에서 보급한 경운기에 쟁기와 씨레를 달아 논갈이를 하였다. 경운기를 이용한 논갈이를 이O태씨는 '놋다리 친다.'라고 표현을 하였다. 1990년대가 되면서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로 발전하였다.

모판 자리 만드는 건 아저씨가 하지. 그 전에는 기계가 없으니깐 소로 했지. 썰고 갈고 했지. 쟁기가 있잖아. 쟁기로 갈고, 씨는 건 나무로 만든 걸로 판판하게 다지고. 법씨 불리면서 미리 갈아서 해놓는 거지. 법씨 건지기 전에 미리 해놔야지. 그거 같이 하려면 힘들지.³⁷⁾

모종 클 동안에 논도 갈아야 하고, 썰어서 맨바닥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전에 다 해야 해. 모 심기 전에 하는 거야. 그때 경운기가 있었어. '놋다리 친다'고 해서 경운기 뒤에 달고 흙을 뒤집는 거야. 놋다리라고 하는데, 흙을 파. 그리고 판판하게 만들어야 해. 하여튼 모심기 전에 아무 때고 빨리 해놔야 돼.³⁸⁾

⑤ 모내기

모종 낸 지 한 달에서 45일 정도 지나면 모내기를 하는데, 대략 5월 15일에서 20일쯤이 된다. 모내기는 논에다 벼 모종을 옮겨 심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계로 모내기를 하기 전에는 '도급모'라는 사람이 모내기 일손을 모아서 왔는데, 통일촌에는 전라도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한다.

밭에 모판 만드는 거는 40일 지나면 모 심기 하고, 모심기 할 때 사람을 사오는 거야... 모가 45일 지나면 한 뼘 정도 자라. 그거 자라면 논에 모 심기 하는거야... 모 심는 거는 사람 사서 했지. 옛날에는 사람이 사서 했기 때문에 몰라. 왜냐하면 전라도 아줌마들이 와서 모 많이 냈어. 모도 내고, 단체로 올라와서 모 하는데, 몇 평 값 받아가고, 평당 주는 거야. 일품이 아니야. 평당 얼마야. 당시에 얼마 줬는지 기억은 안 나고, 단체로 여러 패들이 나눠서 오니깐 몇 사람이 사서하고, 당시에 중개해주는 사람이 있지. 그거 사방에서 연락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저거 해주면.³⁹⁾

37) 최O순의 부인(여, 73)
2012년 11월 21일 면담.

38) 이O태(남, 83) 2012년
11월 20일 면담.

39) 이O태(남, 83) 2012년
11월 20일 면담.

5월 15일이나 20일경 되면. 못자리 한 지 한 달 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도 그렇게 해. 기계로 해도. 못자리에 잘 안자라면 영양제 주고 하지. 사람 손으로 다 뽑고, 다 매고 그랬지. 사람 사서 하지. 품앗이도 하고, 사람 사서하고. 지금 기계로 하니깐 사람이 얼마 안 들지. 밖에서 사왔지. 안에 사람이 있나. 밖에서 사왔지. 주로 저기 전라도서 얻어 왔어. 전라도서 도급모라고 맡아서 사람을 데려와. 도급으로 자기네가 맡아가 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재워줘야지.⁴⁰⁾

⑥ 김매기

김매기는 논에 난 잡초를 제거하는 일로 모내기를 마친 15일에서 1달 정도 후에 한다. 통일촌에서는 2번 정도 하는데, 제초제가 나오면서부터는 김매기는 하지 않는다. 김매기를 마치고 나면 장마철을 대비하여 논의 물을 빼고, 논두렁을 터주는데, 이를 ‘물꼬 튼다’라고 한다. 그리고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논둑에 난 잡초를 깎아주는 일을 하는데, 이를 ‘논두렁 풀 깎기’라고 한다.

피뽑기는 모심고 나서. 그건 그 다음에. 모심기 한 다음에 논매기. 논매기는 모심고 난 다음에 그거 보통 뭐 한 거의 한달 걸려야 될거야. 근데 그때부터는 제초제를 썼기 때문에. 논매기를 그래도 했지. 논매기도 하는데, 제초제를 뿌려서 정리했어. 모내고 나서 제초제를 2차 뿌리는 거지. 그리고 한 달 후에 김매기를 하는 거지. 김매기는 시시대때로. 그게 크게 되면 하는 거고. 아무 때나. 김매기 할 때 되면 6월, 7월. 장마 대비해서 그건 뭐 그때 당시에 때때로 보가지고... 장마 지나면 논두렁에 풀 난 거 깎아야 하고. 논두렁 풀깎기.⁴¹⁾

밭 김매는 거지. 그 전에는 맵는데, 잡초 뽑고, 여러 가지 풀 뽑고 했지. 거의 2번하고 말지. 모 심고 보름 지나야 풀이 나니깐. 지금은 약이 있으니깐, 제초제를 뿌리니깐 안 뽑아. 손으로 다 매지... 농사꾼은 노상 일해야지. 논에 물 넣으러 다니고, 논두렁 깎으러 다니고,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고,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논둑 깎고 하지 뭐. 장마철이 되면 논에 물이 많으면 물을 빼는 거지. 물 빼는 건 논두렁을 띄어놓지. 처음에는

40) 최O순의 부인(여, 73) 2012년 11월 21일 면담.

41) 이O태(남, 83) 2012년 11월 20일 면담.

논두렁을 높게 세웠다가 장마 때 튀어 놓고, 장마 지나고도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터 놔야 해. 옆에 한군데 물 빠져나가게 해놓지. 부르는 이름은 없어. 논두렁을 떠 놓는 거지. 물꼬를 튀어놓는다고 하지.⁴²⁾

⑦ 추수

통일촌에는 8월에서 10월까지 쌀 수확을 한다. 8월에 수확하는 쌀은 올벼로 추석에 먹을 햅쌀용이고, 10월에 수확하는 쌀은 늦벼로 1년 내내 먹는 쌀이다. 늦벼는 맛이 좋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

논에서 벼를 베면 바로 탈곡하는 게 아니다. 벤 벼를 논에 넣어두거나, 건조기에 넣어 건조한 후에 탈곡한다. 통일촌엔 도둑이 들지 않아, 논에 벼를 넣어놔도 걱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 벼를 논에 넣어서 말리거나,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이유는 바로 벤 벼는 축축하여 탈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는 보통 10월 말서부터 수확을 해. 올벼는 9월 10월에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 올벼를 많이 안 해. 늦벼를 해. 왜냐하면 아끼바리 같은 거 많이 심기 때문에. 아끼바리는 밥맛이 좋고, 그러니깐 심지. 지역 날씨하고 상관없이 비싸게 팔려서. 밥맛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 선택해서 심는 거야. 빨리 심어도 뭐 수확은 거의 같이 해야 돼. 빨리 심는다고 빨리 나는 게 아니야. 빨리 심는다고 별로 빨리 나지도 않아. 차이가 없어.⁴³⁾

철 따라서 수확을 하는데, 가을철이 이르면 8월달부터 하고, 늦으면 9, 10월도 하고, 가을이 일찍이다 하면 일찍 하고, 느리다 하면 늦게 하고. 올벼는 일찍 베지. 추석 아래 햅쌀이 나오니깐. 품종도 다르지. 빨리 나오는 법씨지. 늦벼는 추석 지나고 나오는 거고. 맛은 늦벼가 좋지. 올벼는 8월 추석에 하는데, 8월달에 햅쌀을 먹는다는 거지. 맛이 없어. 같은 논에 나눠서 심는 거지. 올벼 따로 심고, 늦벼 심고. 심는 시기는 같은데, 여무는 시기가 다른거지. 올벼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심는데, 우리는 올벼 안 심어. 늦벼만 심어. 늦벼가 맛있지. 올벼는 추석 때 팔아야지. 그때 지나면 맛이 없어.⁴⁴⁾

42) 최O순의 부인(여, 73)
2012년 11월 21일 면담.

43) 이O태(남, 83) 2012년
11월 20일 면담.

44) 최O순의 부인(여, 73)
2012년 11월 21일 면담.

나. 판매

① 농협 수매하기



통일촌 정미소



통일촌 정미소에 쌓여있는 쌀



통일촌 특미 포장



통일촌직판장에서 판매하는 쌀

탈곡까지 마친 쌀은 통일촌 내에 있는 농협에서 수매한다. 수매한 쌀은 통일촌 정미소에 수합이 되어 도정을 마친 후에 20kg 정량 봉투에 담아 각 지역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정부 비축용으로 보관하기도 한다.

수확하면 정부에서 받잖아. 농협도 받고, 비축용 쌀. 정부에서 받잖아. 옛날에는 시장에 들고 나가서 팔았지. 지금은 다 농협에서 사고, 정부에서 사고, 두 군데에서 사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다 수매하고 말지.⁴⁵⁾

통일촌 정미소 사진을 보면 통일촌 정미소 오른쪽으로 도정기가 있어, 도정 전의 쌀을 받아다 도정을 한 후에 흰 자루에 담아 쌓아놓는다. 이렇게 쌓

45) 이오태(남, 83) 2012년 11월 20일 면담.

아둔 쌀을 통일촌 직판장 앞에 있는 분류장으로 가져가 20kg, 10kg, 5kg 단위로 포장을 한다. 포장을 마친 쌀은 '통일촌 특미'란 상표가 붙어 외부로 판매되기도 하고, 통일촌 직판장 내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② 재래시장 판매

농협이 생기기 이전에는 각 개인이 생산한 쌀을 가지고 문산이나 법원리에 있는 재래시장에 나가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 시장 외에도 개인적으로 쌀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직접 판매할 때는 문산. 문산에서 파는 거나, 농협에서 구매하는 거랑 거의 같아. 거기 시세대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해.⁴⁶⁾

(2) 콩농사

통일촌에서는 '장단백목'이라 불리는 장단콩을 재배한다. 장단콩은 파주 장단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1913년 대한민국 최초의 콩 장려품종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장단콩은 장단지역의 큰 일교차와 마사토로 이루어진 토양을 특징으로 재배된다.

장단콩이라는 거 알아주잖아. 전국에서 옛날에 임금님 밥상에 올라갔다고 하잖아. 그래서 장단콩이 유명하잖아. 그래서 축제가 되었잖아. 맛도 좋고, 두부를 해도 좋고.⁴⁷⁾

장단에는 콩이 아주. 파주 하면 파주시 하면 흰콩하고, 인삼하고, 그 다음이 쌀이예요. 파주시 3덕이라고 해요. 여기 장단백목이라는 것은 흰콩인데, 눈이 싹 트는 눈이 흰 눈처럼 하얗게 나와서 장단백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장단콩이 유명하지요. 콩이 아주 유명하지요. 여기 콩을 보면은 땅이 좋고, 배수가 잘되고, 서해 바람이 잘 되고, 통풍이 잘되고, 아주 콩 심을 때는 삼하고 여건이 아주 좋대요.⁴⁸⁾

46) 이O태(남, 83) 2012년 11월 20일 면담.

47) 송O식(남, 81) 2012년 11월 8일 면담.

48) 김O조(남, 70) 2012년 11월 25일 면담.

통일촌에서 재배되는 콩은 밥에 넣어먹는 서리태와 두부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메주콩이다.

가. 농사법

① 종자준비

통일촌에서는 콩농사를 짓기 위해 매년 1월이 되면 농업인상담실에서 콩농사를 위한 종자를 신청한다.

② 종자소독

3월 중순이 되면 농업인상담실에 신청해서 받은 콩 종자를 소독약과 영양제를 탄 물에 담가 소독한다.

③ 밭갈이와 씨레질하기

4월쯤 되면 콩을 심을 밭을 쟁기와 씨레를 이용해서 깊게 갈아 놓는다. 통일촌이 다른 지역보다 추운 곳이라 좀 늦게 밭갈이와 씨레질을 시작한다. 트랙터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운기의 수레부분을 떼어내고 쟁기를 달아서 밭갈이를 한 후에 씨레로 교체하여 씨레질을 하였다. 밭갈이는 쟁기로 밭을 깊게 가는 일이고, 씨레질은 씨레로 갈린 뭉친 흙을 다지는 일이다.

4월 달부터 시작하지. 여기가 약간 춥다고 할 수 있지. 추워서 늦게 심어. 밭을 갈고, 갈고, 계속 갈아야지. 경운기로 밭갈이를 했어. 경운기 뒤를 떼고, 씨는 걸 달고 썰고. 지금은 트랙터로 하지. 썰고, 갈고. 수레부분을 떼고 쟁기를 달아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4월부터 시작을 하지. 밭갈이는 많은 사람은 며칠 걸리고, 적은 사람은 금방 하고, 갈고, 또 썰고, 여러 가지야. 트랙터처럼. 쟁기를 갈아키우고 직진하는 건 갈고.⁴⁹⁾

④ 토양 개량

콩을 심을 밭에 석회 또는 규산질 비료를 섞어 콩농사에 적당한 토양으로 개량한다.

49) 송O식(남, 81) 2012년 11월 8일 면담.

⑤ 파종

4월이 되면 소독한 콩을 모판을 만들어 파종한다. 파종하고 3일 이내에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 비료를 뿌려준다.

⑥ 모종 옮겨심기

5월 초순 정도가 되면 콩을 심을 밭에 추가적으로 비료를 뿌려 콩나무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후에 콩 모종을 옮겨 심는다. 콩 모종을 옮겨 심으려면 발두둑을 만든다. 발두둑은 약 한 뼘 이상으로 높이고, 로타리를 이용하여 점성 비닐을 씌운 곳에 약 30cm 간격으로 구멍을 내어 콩 모종을 심는다.

지금은 콩 모종을 심는 것을 기계로 하지만, 기계가 없을 때는 사람이 일일이 발두둑에 쪼그려 앉아 발두둑에 씌운 비닐에 구멍을 내어 심었다. 그래서 콩 모종을 심고 나면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팠다고 한다.

콩 심으면 허리 아프고, 다리 관절이 아프고, 씨와 씨 사이 간격은 30cm 정도이지. 뿌리고 나면, 비료도 줘야 하고, 약도 줘야 하고. 비료는 심기 전에, 심기 전에 비료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씨를 뿌리거나 심고, 심기 전에 뿌리는 비료가 있고, 복합이라고, 심은 후에 주는 요소라는 게 있고, 비료는 농사 안 되면 또 줘야 하고,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적당히 봐서.⁵⁰⁾

⑦ 김매기

5월 중순이나 하순이 되면 콩밭 김매기를 한다. 콩밭 김매기는 모종을 밭으로 옮겨 심은 후 모종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거름기가 많아 과하게 자란 콩나무를 솎아주는 일이다. 이때 잡초도 같이 뽑아 준다. 콩밭 김매기는 보통 3번에 걸쳐 이뤄지는데, 5월 중순이나 하순에 1번, 6월에 1번, 7월 초순에 1번 한다.

피 뽑기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않는 사람은 안 하고. 이제 물 같은 거 조절하고, 풀 베야지. 풀 벤다는 거는 뭐라고 해야 하나. 잡초를 매는 거지. 뽑아낸다는 거지. 콩에도 잡초가 많지. 잡초 안 매주면 콩이 안 돼. 뭘 곡식

50) 송O식(남, 81) 2012년 11월 8일 면담.

이고, 풀을 뽑아줘야 해. 보통 3번까지 해야지. 이제 콩을 심는다 하면 4월 달이면 콩을 심는다고 하면 5월달에 심는다고. 그럼 한 5월 중순 하순 지나서 풀 한 번 매주고, 그때 한 번 뽑아주고, 또 이제 풀이 많으면 뽑아주고, 7월 초순이지. 7월달에 하면 끝이야. 6월달쯤에 한 번 더 뽑지.⁵¹⁾

⑧ 병충해 방지

7월부터 9월까지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 3회 정도의 농약을 친다. 병에는 점무늬병이 있고, 해충에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의 노린재류, 콩나방 등이 있다.

⑨ 수확

10월이 되면 콩은 수확을 한다. 수확은 콤바인 같은 농기계를 이용한다.

⑩ 탈곡

수확한 콩은 밭이나 하우스에 널어서 건조한 후에 알갱이를 터는 탈곡을 한다. 기계식 탈곡기가 없을 때는 도리깨를 이용하여 콩 알갱이를 수확한 후에 그물형 선별기에 넣어 콩을 크기나 품질별로 선별을 하였다.

사진은 수확한 콩을 길에 널어서 말리는 모습과 건조된 콩을 탈곡기에 넣어 탈곡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수확한 콩 건조하기



콩 탈곡하기

⑪ 건조, 선별 및 저장

탈곡한 콩은 벌에 널어서 건조한 후에 콩의 상태에 따라 선별하여 저장한

51) 송O식(남, 81) 2012년 11월 8일 면담.



탈곡한 콩 선별하기

다. 사진은 철로 된 그물망형 선별기에 탈곡한 콩을 부어 돌을 골라내고, 품질 상태가 안 좋은 콩을 골라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선별을 마친 콩은 자루에 담아 창고에 보관한다.

나. 판매

통일촌에서는 장단콩이 생산되면 11월에 개최되는 장단콩축제에 내다 판다. 장단콩 축제는 1997년부터 개최되어 2012년에 16회가 되었다. 장단콩축제 이전에는 문산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장단콩축제 이전에는 문산·금촌·법원리·샘내 등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판매하였다.

여기는 서리태. 그 다음에 메주콩이라고 두부콩. 띠 종류도 있는데, 주로 서리태, 메주콩을 해. 장단콩 축제에 가서 다 팔잖아. 띠 사람이 달라고 하면 한두 말씩 주고, 많이 팔려고 하면 축제 때 팔고, 축제 때 한 가격으로 받아서 팔아야지. 시세가 있잖아. 축제 때 갖다 팔아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깐, 한꺼번에 다 팔 수 있잖아. 장단콩이 벌써 10년이 넘지. 축제하기 전에는 이제 달라는 사람 있으면 주고, 개인적인 매매, 농협에서 매수하기도 하지. 개인적으로 팔려면 힘들고.⁵²⁾

사진은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16회 장단콩축제에서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장단콩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파주시에 콩판매를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신청자별로 판매장을 배정하고 그 곳에서 콩을 판매하는 것이다.

52) 송O식(남, 81) 2012년 11월 8일 면담.



장단콩 판매장

(3) 고추농사

고추는 통일촌에서 장단콩과 더불어 많이 재배되는 밭작물이다.

가. 농사법

콩의 재배형태를 표로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씨뿌리기 / ■ 모 기르기 / ■ 밭에 심기 / ■ 가꾸기 / ■ 수확

① 씨뿌리기(파종)

통일촌은 1월 중순이 되면 모판에 고추씨를 심는 파종을 한다. 이 일이 통일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농사일이다. 고추 모종을 하우스에 만든 후에 낮에는 열어두고, 밤에는 덮어두는 식으로 고추 모종에 신경을 많이 쓴다.

매년 1월 20일 넘으면 하우스에 고추모종이 나가. 고추 모종을 하우스에 해야 돼. 그래야 밭에 심어야 하니깐. 그러니깐 아침에는 열고, 하우스 안에서 봉했던 거 열고, 밤에 덮고 해야 돼.⁵³⁾

고추 모도 보는 거지. 흙에다 갈아서 준비하는 거 2월에 해. 하우스에 심을 거를 그때 하는 거야. 거의 그때 해. 모종하는 흙이 있지. 사다가 해.

53) 홍O태(남, 83) 2012년 10월 19일 면담.

씨를 틔워가지고, 또 심고, 모내고... 씨에서 싹을 틔워서 모를 부어. 모를 뒀다가 모종을 이종을 하지. 키워서. 추위도 안 되고, 더위도 안 되고, 힘 들어.⁵⁴⁾

② 이랑 만들기

5월이 되면 파종한 모종을 밭에 내다 심는다. 이때 모종을 심기 1~2주 전에 밭에 거름을 주고 밭을 깊이 갈아줘야 한다. 밭을 갈아준 후 고추 모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랑을 만든다. 이랑은 고추를 심었을 때 물 빠짐이 좋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이랑의 높이는 약 두 뼘 정도가 좋다. 이랑을 높인 후에는 검정 비닐을 씌워 모종을 심을 땅의 온도를 높여준다.

③ 모종심기

이랑 만들기가 끝나면 고추 모종을 옮겨 심는다. 모종을 옮겨 심는 시기는 대략 서리가 끝나는 입하 전후인 5월 상순이 된다. 고추 모종을 옮겨 심을 때 고추 모종과 고추 모종의 간격은 50cm 간격이 좋다. 고추 모종을 심을 때 너무 깊이 심지 않아야 하는데, 모종의 흙이 약간 보일 정도로 흙을 덮고 물을 충분히 준다.

④ 받침대 세우기

고추모종을 밭에 심은 지 10일이 지나면 받침대를 세워 고추모종이 쓰러지지 않게 한다.

⑤ 잡초 제거

검정 비닐을 씌운 고추밭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지만, 검정 비닐을 씌우지 않은 고추밭에는 잡초가 자라므로 뽑아준다.

⑥ 물주기

비가 오지 않아 가물 때는 4~5일 간격으로 고추밭에 물을 주어 고추가 타 죽지 않게 관리한다.

54) 최O순의 부인(여, 73)
2012년 11월 21일 면담.

⑦ 옷거름 주기

고추 모종을 심은 지 35~40일이 되면 3회 정도의 거름을 준다. 이때 거름을 주는 것은 고추나무의 뿌리가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⑧ 병해충 방제

고추는 역병과 탄저병 발생률이 높다. 6월 이후 장마가 시작되면 습기가 높고, 거름기가 부족하여 역병이나 시들병, 진딧물, 담배나방 등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여름철과 장마철에는 탄저병이 심하므로 비오기 전후 15일 간격으로 약을 뿌려줘야 한다.

⑨ 수확

고추는 보통 7월 하순부터 7~10일 간격으로 수확한다. 이때 풋고추는 꽃이 핀 다음 20~25일 된 것을 따고, 붉은 고추는 꽃이 핀 다음 45~50일 정도 지난 후에 따는다.

⑩ 건조

수확한 고추는 그늘에서 2~3일간 후숙을 시킨 후에 병이 들거나 미숙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골라 제거한다.

골라낸 고추는 세척한 후에 건조시킨다. 건조방법은 하우스 내에 널어서 하거나, 아스팔트와 같은 길에 널어서 하거나, 건조기를 이용하거나 한다.



하우스에서 건조 중인 고추

나. 판매

수확한 고추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도 하고, 문산시장 같은 재래시장에 가서 판매하기도 한다.

(4) 기타 작물

가. 인삼

인삼은 통일촌에서 주력품목으로 재배되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쇠퇴하는 분위기다. 재배기간에 비해 수확량이나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삼은 한번 파종을 하면 약 6년을 돌봐야 하는데, 6년 동안에 자연재해나 병이 퍼지면 인삼재배는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인삼 재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처음에 하다가 중단하다가 다시 조금 했어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조금 있다가 하다가, 한 2년 하다가 관됐고, 한 70년대 후반쯤 하다가, 형편이 안 되죠. 인삼이라는 건 모든 게 그렇지만, 내 자본이 쉬운 말로 돈 있어야 돈 번다고. 그런 상황에서 빚내서 응자해줘서 해가지고 캐서 다 주고 나면 내 인건비 간신히 남는데 왜 해. 그걸 힘들게 왜 해. 안 했다가 다른 벼농사, 콩농사 짓다가 마땅치 않다가 다시 인삼해보니깐 그것도 마찬가지로.⁵⁵⁾

인삼을 재배하기 좋은 땅은 모래와 자갈이 적당하게 섞인 비탈진 땅으로, 예전에 인삼을 재배했던 땅이나 채소, 마늘을 심었던 밭은 피한다. 인삼을 심기 전에 여러 번 쟁기질을 해서 흙을 깊게 파고, 잡초를 없앤다.

인삼씨는 하지 때 4근(4년생) 인삼에서 따서 시루에 모래와 씨를 켜켜로 섞어 얹어서 100일 동안 두면 싹이 난다. 이를 인삼밭에 뿌리는데, '종삼포(인삼씨송곳)'로 찍어서 낸 구멍에 씨를 하나씩 일일이 넣고 백토로 복토하여 1년 동안 재배하면 종삼이 된다. 한식 때쯤 종삼을 캐서 선별한 다음 본포에 옮겨 심는다. 종삼은 송판을 마름모 모양으로 손바닥 만하게 잘라 만든 '조막손'을 이용하여 흙에 골을 내고 종삼을 비스듬히 눕어서 복토하여 심는데, 한자 간격의 눈금이 있는 잣대에 맞추어 4줄로 심는다.⁵⁶⁾

인삼포에는 햇볕을 막고 빗물이 직접 닿지 않게 칸별로 밤나무 가지로 기둥을 박고 짚으로 이영을 엮어 지붕을 덮는다. 겨울이 되면 새로 이영을 덮고 흰 이영은 바닥에 깔아 인삼이 얼지 않도록 보온한다. 봄이 되면 인삼을

55) 무명씨(남, →) 2012년 11월 30일 면담.

56)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2003.

덮었던 짚을 걷어낸다.

통일촌 인삼은 6년근을 주로 재배한다. 이렇게 재배한 인삼은 10월 말에 열리는 개성인삼축제에서 팔거나, 계약을 맺은 인삼조합에 판매한다.



통일촌 내 인삼밭



개성인삼축제

나. 양봉

양봉은 통일촌에서 한때 성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쇠퇴하였다. 최○영 씨만이 통일촌에서 양봉업을 하는데, 꿀을 채취하는 것보다는 벌치기를 주로 하고 있다.

다. 배농사

통일촌에서 배농사는 이○호씨네만 하고 있어서 파주, 양주, 연천지역 사람들과 작목반을 꾸렸다. 통일촌에서 생산된 배는 파주시배연구회를 통해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배농사는 1년 내내 가지치기를 통해 배가 많이 열리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가지 친 후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야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배가 많이 열리게 된다.

판매는 수출을 많이 해요. 국내서 조금 나가기도 하는데, 수출을 많이 하지. 수출은 파주하고 양주하고 연천하고 작목반을 맺어서 수출을 하지. 파주시배연구회. 거기에 들어있지. 일손이 맨날 딸려서 힘들어요.⁵⁷⁾

57) 이○호(남, 68) 2012년 11월 25일 면담.

라. 콩을 이용한 식품 판매

통일촌에서는 장단콩을 이용한 식품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약 16년 전에 마을 부녀회 회원 중에 4명이 장단콩영농조합을 설립하여 된장, 청국장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그러다 2사람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였다. 현재 통일촌 내에는 3개의 업체에서 장단콩을 이용하여 된장, 청국장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장단콩영농조합 전경



통일촌직판장에서 판매되는 장류

마. 축산

축산업은 통일촌 입촌 초기부터 있었던 생업이었다. 정부에서 대출을 해 줘서 소를 구입하였다. 소는 1년 정도 키우면 새끼를 낳을 수 있어서 새끼를 낳으면 판매하여 정부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소파동으로 인해 축산업이 쇠퇴하여 현재는 3가구 정도가 생업으로 삼고 있다.

소도 길렀는데 뭐. 소 키우는 사람이 많았지. 다 키웠지. 한 가구에 대여섯 마리씩 키웠는데, 소 파동 나는 바람에 팔았지. 젓소 파동. 농사용 소도 키웠지만, 소도 사줬잖아. 소 이자하고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 주고 샀지. 정부에서 보조를 한 거지. 소가 새끼를 낳잖아. 돈만 갚으면 되니깐. 1년에 한 마리씩 낳잖아. 맘대로야. 갚으면 되니깐. 이자로 주는 거지.⁵⁸⁾

58) 최O순(남, 74) 2012년 11월 21일 면담.

소파동이 있기 전까지는 통일촌에 있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적든 많은 소를 키우는 축산업을 했다. 지금은 축산업을 하는 가구가 3가구뿐이지만, 통일촌 마을 내를 다녀보면 폐사된 축사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 폐사된 축사들을 보면 통일촌에서의 축산업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축사



폐사된 축사

(5) 농기구

가. 수작업용 농기구

통일촌은 입촌 초기부터 기계화된 농업방식을 택했다. 입촌 당시에 농사용 소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2년 후 경운기가 2가구당 1대씩 지급됨으로써 경운기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정부 보조를 받은 트랙터가 보급되기도 하였다.

기계화된 농사를 지었지만,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작업용 농기구들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① 도리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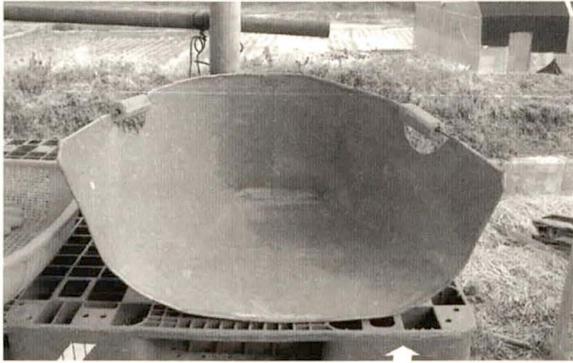
도리깨는 수확한 콩의 알맹이를 탈곡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지금은 기계화된 탈곡기로 콩을 탈곡하지만, 적은 양의 콩을 수확했을 때는 지금도 도리깨를 사용해서 콩 알맹이를 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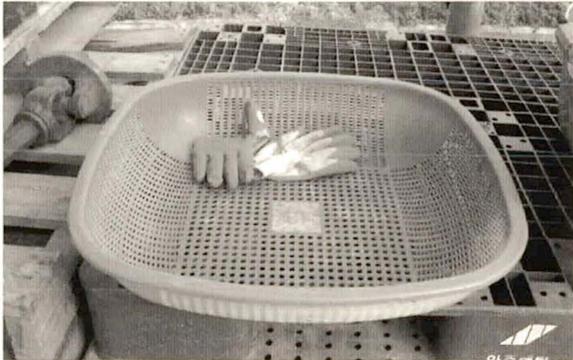
도리깨로 콩 털기



그물망을 이용한 콩 선별



플라스틱 삼태기



소쿠리



저울

② 철망형 콩선별기

철망형 콩선별기는 철로 된 그물망 형태의 콩 선별기로 탈곡된 콩 알맹이를 이곳에 부어 돌이나 콩 찌꺼기와 분리하는 농기구이다. 철망형 콩선별기는 개인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탈곡과 선별이 한 번에 이뤄지는 탈곡기를 사용하고 있다.

③ 삼태기

삼태기는 곡식, 두엄, 모래, 자갈 등의 흐트러지기 쉬운 물건을 모아서 옮길 때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사진에 보이는 삼태기는 수확한 콩을 건조하거나 탈곡기에서 받아 옮길 때 주로 사용한다. 재질은 플라스틱이다.

④ 소쿠리

소쿠리는 곡식을 옮길 때 담아서 옮기는 농기구이다. 콩을 탈곡하고 선별할 때 담아서 옮길 때 사용하며, 재질은 플라스틱이다.

⑤ 저울

곡식의 무게를 재거나, 정량별로 나눠서 포장할 때 사용한다. 사진에 보이는 저울은 통일촌 정미소에 보관되어 있는 저울로 도정한 쌀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고 있다.

⑥ 비닐피복기

비닐피복기는 콩이나 고추 같은 밭작물을 농사지을 때 밭이랑을 높인 후에 검정 비닐을 씌울 때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밭이랑의 한쪽

끝에서 한 사람이 서서 검정 비닐을 잡고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비닐피복기를 끌고 밧이랑의 다른 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가로로 설치된 판에서 검정비닐이 풀리면서 밧이랑을 덮게 된다.

⑦ 모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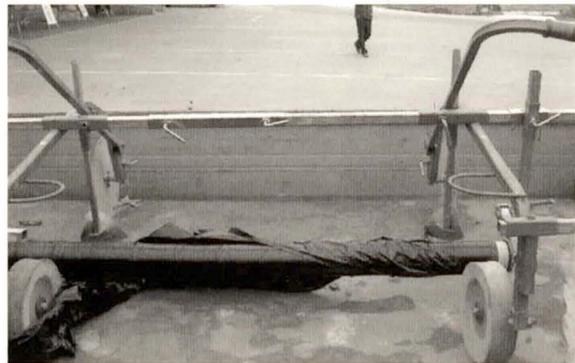
모판은 쌀농사를 지을 때 벼 모종을 키워내는 농기구이다. 저 모판에 흙을 담고 물에 불린 볏씨를 심어 논이 못자리나 집의 하우스에 두어 벼 모종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⑧ 괭이

괭이는 단단한 땅을 파고 고르는데 사용하는 농기구이다. 콩이나 고추 같은 밭농사에서 쓰인다.

⑨ 호미

호미는 콩이나 고추 농사 같은 밭농사에서 쓰이는 농기구이다. 굽는 호미는 밭을 굽을 때 사용하고, 캐는 호미는 땅 속의 무언가를 캐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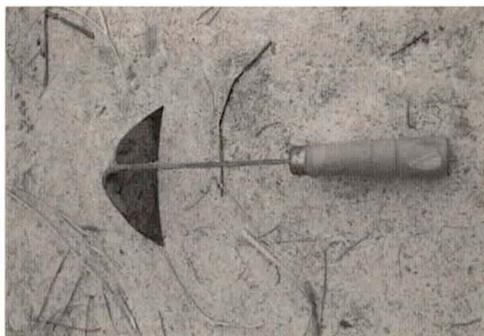
비닐피복기



모판



괭이



굽는 호미



캐는 호미



쇠스랑



플라스틱 갈퀴

⑩ 쇠스랑

쇠스랑은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가
다. 팽이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끝이 갈라져
있어 땅을 일갈 때 흙을 잘게 부수고 고를 수
가 있다.

⑪ 갈퀴

갈퀴는 수확한 곡식들을 모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사진의 갈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
어졌으며, 탈곡한 콩을 벌에 넣어 건조할 때
콩을 흩뿌리거나 모을 때 사용한다.

나. 기계화 농기구

통일촌은 입촌 2년 후부터는 경운기를 가
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트랙터나 이앙기를 이용한 농사가 이뤄졌다. 통일촌의 주작물인 콩 재배에
서도 기계화가 이뤄졌는데, 콩 터는 것이 주기능이었던 탈곡기도 후에는 콩
선별기능도 추가된 탈곡기로 발전했다. 그리고 수확한 벼, 콩, 고추를 건조
하는 건조기도 각 가정에 비치되어 있었다.

① 경운기

통일촌은 1975년에 정부에 의해 2가구당 1대의 경운기가 보급되었다. 경



경운기



경운기 수레

운기의 수레부분은 탈부착 가능하였다. 그래서 짐을 옮겨야 할 때는 수레를 달고, 논밭을 갈 때는 쟁기나 씨레를 달아서 사용하였다.

② 콩 탈곡기

통일촌은 콩 농사를 많이 지어 콩을 탈곡하는데 사용하는 기계가 다양하게 있다. 철망이 달린 콩 탈곡기는 콩 알맹이가 탈곡되어 나오는 곳에 소쿠리와 같은 농기구를 두어 콩 알맹이를 받은 후에 위의 철망에 부어 콩 탈곡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나 돌을 선별하는 기능을 가진 탈곡기다. 종합탈곡기는 콩 알맹이 탈곡과 선별이 한 번에 이뤄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종합탈곡기는 수확한 콩을 넣으면 콩 껍데기와 콩대는 뒤로 빠져나오고, 콩 알맹이는 앞으로 나온다.



콩 탈곡기



콩 탈곡 및 선별기

③ 로타리

로타리는 논을 썰 때 사용하는 농기계로 트랙터에 탈부착이 가능하다. 로타리는 쟁기질한 땅의 멍친 흙을 부수는 역할을 한다.



로타리

④ 쟁기

쟁기는 땅을 갈아서 뒤집는 역할을 하는 농기구로 트랙터에 탈부착이 가능하다. 오른쪽의 사진은 콤바인과 쟁기가 결합된 농기구이다.



쟁기



콤바인에 결합된 쟁기



자동건조기

⑤ 자동건조기

밭에서 수확한 콩이나 고추 등을 전기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농기구이다. 밭에서 금방 수확한 작물들은 습기가 남아 있어, 탈곡이나 저장이 용이하지 않다. 자동건조기에 넣어 건조를 시키면 빠른 시간 내에 습기가 제거되어 탈곡이나 저장이 가능하다.

3. 통일촌의 일년살이와 연중행사

(1) 일년살이

통일촌의 일년살이는 농사와 관계되어 있다. 다른 지역 처럼 오랜 세월을 거쳐 조성된 마을이 아닌 정착사업을 위해 마을이 구성되었기에 공통적으로 치르는 세시풍속이나 의례는 찾아볼 수가 없고, 생업을 위한 농사나 마을행사를 통해 통일촌의 일년살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봄

봄이 되면 통일촌은 1년 농사짓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 통일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춥기 때문에 농사준비는 조금 늦다고 할 수 있다. 3월이 되면 콩농사를 위한 콩 모종심기 준비를 한다. 4월이 되면 쌀농사를 위한 볍씨 소독을 한다. 5월이 되면 쌀농사를 위한 모내기과 고추농사를 위한 모종 옮겨심기, 콩농사를 위한 모종 옮겨심기를 한다.

나. 여름

여름이 되면 통일촌에서 본격적인 농사짓기에 들어간다. 논이나 밭에 옮겨 심은 모종들이 자라 잡초가 생겨날쯤이라 김매기를 통한 잡초제거와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 살포를 실시한다. 그리고 8월 끝이 되면 고추와 올벼 수확을 한다.

6월이 되면 쌀농사를 위한 김매기와 고추농사, 콩농사를 위한 잡초 뽑기를 한다. 7월이 되면 풋고추를 수확하기 시작하고, 쌀농사를 위한 장마대비를 한다. 8월이 되면 붉은 고추를 수확하기 시작하고, 쌀농사에서는 올벼를 수확한다.

다. 가을

가을이 되면 통일촌에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늦벼를 수확하고, 콩을 수확한다. 수확한 늦벼는 농협에 수매를 맡기고, 장단콩 축제를 위해 콩을 수확하고 건조한다. 그리고 가을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개인별 고사나 장승제를 지내기도 한다.

9월이 되면 붉은고추를 수확하여 말리거나 수매를 하고, 쌀농사에서는 수확한 올벼를 건조하여 농협에 수매한다. 10월이 되면 장단콩을 수확하여 탈곡 후 건조하고, 쌀농사에서는 늦벼를 수확한다. 개성인삼축제에 참여하여 인삼을 판매한다. 11월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김장을 담근다. 통일촌은 북쪽 지역이라 김장담그기와 같은 월동준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다. 11월 중

에 군내초등학교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학생들이 학예회를 한다. 11월 말이 되면 장단콩을 수확하며, 이때 수확한 장단콩은 장단콩축제에 참여하여 판매한다. 11월 중에는 통일촌 입구에 세워진 장승에서 장승제를 지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라. 겨울

겨울이 되면 통일촌에도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온다. 장단콩축제까지 마치고 나면, 경로당에 모여 함께 놀거나, 노인회에서 주최하는 관광을 가기도 한다. 고추모종을 심기 전까지는 휴식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장을 만들기 위한 메주를 만들어 띄우기도 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있는 백연리, 대성리, 동패리 등의 세 마을이 돌아가면서 윷놀이 및 노래자랑대회를 한다. 2012년에는 대성동에서 개최되었다.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윷놀이와 노래자랑대회를 통해 마을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협동심을 키우고 있다.

2월이 되면 고추 농사를 위한 고추모종심기 준비를 한다.

(2) 연중행사

가. 척사놀이



한마음 축제



한마음 축제 전경

척사놀이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는 백연리, 대성리, 동패리 세 마을이 모여 마을별, 개인별 척사대회를 한다. 이 대회는 세 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하므로 3년에 한 번 개최순서가 돌아온다. 정월대보름 한마음축제로 진행된다.

나. 개성인삼축제

개성인삼축제는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특산물축제이다. 매년 10월 3째주에 임진각 통일동산에서 개최된다. 개성인삼축제에서는 인삼 판매 뿐만이 아니라 인삼을 활용한 음식이나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그리고 인삼 외에도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작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도 겸하고 있다.

다. 파주장단콩축제

파주장단콩축제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콩을 특화한 축제로 우리나라 유일의 콩축제이다. 매년 11월 2째주에 임진각 통일동산에서 개최되고 있다. 처음에는 통일촌 내에서 개최되었으나, 출입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어서 임진각 통일동산으로 장소를 옮겼다. 파주장단콩축제에서는 장단콩 작목반별로 판매장을 설치하여 콩을 판매하고,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사장 내에 농산물장터를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장단콩축제에서는 콩 외에도 콩을 활용한 음식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메



장단콩 축제장



장단콩 축제장 내 농산물장터

주 만들거나 콩을 이용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콩재배를 하지 못해 콩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 김장 담그기

통일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춥기 때문에 김장을 담그는 시기가 타 지역에 비해 보름이상 빠르게 진행된다. 통일촌 주민들은 김장을 담그기 위해 8월부터 배추, 무, 쑥갓, 파, 마늘 등의 김장재료를 직접 파종하고 키운다.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소금, 젓갈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통일촌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여기가 김장이 빨라. 우리 마을은 거의 다 했어. 통일촌에서는 90%는 하고. 여기가 추워서. 다 얼어버려. 무고 배추고 밭에 두면 얼어버려. 그러면 안되니깐. 다른 집은 열흘전부터 시작했어. 11월 초부터 김장을 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김장을 해. 배추, 무, 고춧가루 다 우리가 한 거지.⁵⁹⁾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8월에 종묘사에서 배추, 무, 쑥갓 등의 김장 재료 모종을 사다가 밭에 심는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순이 되면 김장 재료들을 수확한다. 수확한 김장 재료 중에 배추는 소금을 푼 물에 약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절여 숨을 죽인다. 숨이 죽은 배추는 3회 정도 행구어 물이 빠지게 건져놓고, 이때 배춧속양념을 만든다. 배춧속양념은 무를 채 썰고, 쑥갓, 마



배추 버무리기



김장용 재료 모종

59) 조O환(남, 68), 홍O덕(여, 65) 2012년 12월 8일 면담.

늘, 고춧가루, 젓갈 등을 넣고 버무려 놓는다. 물기가 웬만큼 빠진 배추에 배춧속양념을 묻히고, 통에 넣는다. 양념을 묻힌 배추를 넣은 곳에 고춧가루를 섞은 소금을 더 넣어 간을 맞춘다. 이렇게 완성이 된 김장배추는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한다. 예전에는 마당에 땅을 파고 장독을 묻었지만, 요즘에는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이곳에 보관한다.

김장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이는 김장을 하면 자기네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친인척에게도 보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기 때문이다.

김장을 품앗이로 만들고 하다 보니 김장을 담그는 법도 거의 비슷하게 통일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각자 자기 고향식대로 만들었지만,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방법이 통일되어 이제는 '통일촌식 김장 담그기'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다 경기도야. 지방에서 들어와도 전부 다 통일됐어. 다시 여기 통일촌 형식대로 됐어. 거의 다 따라가는 거야. 함경도 사람이라고 함경도 식이 아니고, 그냥 여기가 고향이 되어서 비슷해지는 거야.⁶⁰⁾

마. 메주와 장 만들기

메주 만들기는 김장 담그기도 끝나고 파리가 없는 겨울에 한다. 통일촌에서 생산되는 장단콩으로 메주를 만드는데, 보통 한 솥을 끓이면 네 덩이 정도의 메주가 나온다고 한다.

콩은 은근한 불에 5시간 이상 삶아서 콩이 잘 뭉개지도록 해야 한다. 뭉글하게 오래 삶아야 콩이 잘 뭉개지고 맛도 좋다고 한다.

5시간 이상 삶은 콩을 자루에 넣고 비닐을 덮은 후에 발로 밟아서 으갠다. 예전에는 절구에 넣어서 으갠으나, 지금은 힘이 들어 발로 밟는다. 그런데 발로 밟는 것이 절구로 한 것보다 더 잘 으깨져 좋다고 한다.

메주는 파리 안 낄 때, 콩을 삶아서 말려서 띄워야지. 덩어리를 만들어, 그냥 밟아. 다 익으면 자루에 넣어가지고 비니루 덮고 밟으면 곱게 밟혀져. 옛날에는 찢었는데, 너무 힘들어. 찢는 거는. 찢어서는 못 해.⁶¹⁾

60) 조O환(남, 68) 2012년 11월 8일 면담.

61) 경O봉(여, 78) 2012년 11월 30일 면담.



메주콩 삶기



삶은 메주콩 다지는 용품들

발로 밟아 으갠 콩을 꺼내서 개인 취향에 따라 사각형의 모양이나 동그란 모양의 메주를 만들어 짚을 깔고 그 위에 올려놓고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메주가 꾸둑꾸둑하게 마르면 짚으로 엮어서 천장이나 공중에 매단다.

천장이나 공중에 매달아 정월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을 보통 '메주 띄운다.'고 표현한다. 메주를 띄우는 시간은 약 한두 달이다. 음력 정월이 될 때까지 방에서 띄우다 말날에 장을 담근다.

방에다 널어놓으면 마르거든. 마른 다음에 달아매놨다가 정월달에 음력 정월달에 그때 띄워서 씻어서 말려가지고 장 담그지.⁶²⁾

정월이 되면 잘 띄워진 메주를 물에 씻어 건져 놓는다. 항아리에 씻어 건져놓은 메주와 소금과 물을 넣는다. 그리고 그 안에 숯과 고추도 넣어 놓는다. 그리고 약 45일 동안 두면 메주와 물과 소금이 어울려 간장이 된다. 그러면 간장에서 메주만 건져내어 된장을 만든다.

음력 정월에 이젠 장을 담아놓으면 장 담아놓고 한 45일 되면 갈라. 45일 되면 간장하고 된장하고 갈라가지고 이제 숙성되면 먹어야지. 그러니깐 이제 한 3월이 되면 한 6개월은 되어야 숙성이 되거든. 된장은. 갈라 놓고 6개월은 되어야 숙성이 되니깐. 메주 넣고, 물 넣고, 소금. 그렇게 45일 띄우는 거지. 45일 지나면 갈라. 메주만 들어내고, 간장은 간장대로 먹고.⁶³⁾

62) 경오봉(여, 78) 2012년 11월 30일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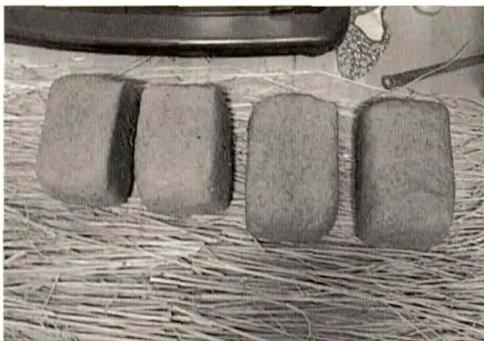
63) 경오봉(여, 78) 2012년 11월 30일 면담.

이렇게 숙성된 간장과 된장은 6개월이 지나면 먹을 수 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간장을 만들 때 한 번 끓이기도 한다.

메주를 만들어 띄워놨다가 장을 담그는 시기는 정월 말날이 좋다고 하는데,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제보자는 날짜를 따지지 않고, 본인이 좋은 날을 택해서 장을 담근다고 한다.

메주 끓여, 간장하고 된장 담글 때 고추하고 뭐 숯하고 넣어놓지. 나는 장 담그고 고사 안 지내. 나는 교회 다니니깐 안 해. 나는 날짜도 안 따져. 딴 사람들은 무슨 날이 좋으니깐 간장 담근다 어쩐다 하는데, 나는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따져. 말날. 말날에 담가야 좋대. 나는 그런 거 안 따져.⁶⁴⁾

장단콩으로 만든 간장과 된장은 다른 콩으로 담근 된장이나 간장보다 맛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단콩으로 만든 간장과 된장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



메주 덩어리 만들기



메주 띄우기

64) 경0봉(여, 78) 2012년 11월 30일 면담.

